



10일 오후 광주 상무지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호남·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발표를 마친 후보들이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발전 한나라가 견인”

한나라 전대 '호남·제주 비전발표회'

“한나라 호남의원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인연·연고 내세우며 대의원 표심잡기

한나라당 당권주자들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호남 구애'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 경선전이 후반으로 접어들어 가운데 전대 출마자 12명은 10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 비전발표회'에서 당의 쇄신과 변화, 계파적결과 화합을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저마다 호남과 얽힌 특별한 인연과 지역연고를 언급하며 호남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으며, 일부 후보는 '호남 소외론'을 거론하며 호남 대의원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는 전당대회 때만 되면 터져나오는 '호남 구애'는 '정치적 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친박계 서병수 후보는 자신이 지방 출신임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 표는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한 표는 영남 대표인 저에게 달라"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확실히 챙기고, 나주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친이계 안상수 후보는 "전주

가 검사이질 초임이었고,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희망을 주는 정치, 서민의 고민을 해결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이계 김대식 후보는 "여러분 덕분에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올렸다"며 "지방직 최고위원 권위를 받았지만 버렸다. 선출직 최고위원을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이 호남을 배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 주인공이 된 무대가 광주였다. 민주당의 성지 광주에서 연설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석패율 제도를 채택해

정두언 단일후보 확정 여론조사 남경필 꺾어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7·14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한 남경필(4선·수원 팔달), 정두언(재선·서울 서대문) 후보가 단일후보로 정두언 의원이 11일 결정됐다.

중립쇄신파인 남 의원과 친이(친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친이계 정두언 후보는 "전대에서 한나라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새로운 체제에 당의 운명이 달렸다"면서 "호남출신인 저를 당 대표로 뽑으면 변할 수 있다. 호남출신을 뽑아서 실수를 범하지"고 강조했다.

친이계 정미경 후보는 전북 출신임을 강조한 뒤 "지금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한다. 호남과 제주에서도 한나라당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조선 쇄신 대표"를 표방한 김성식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참패했지만, 호남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여줬다"며 "하지만, 5·18 30주년 행사 때 대통령이 참석하고, 방아타령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 졌다면 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더 큰 표를 얻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12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참석찬 친박계 박연호 후보는 "3년 전 이곳에서 박근혜 대표와 함께 영화 '화려한 휴가'를 봤다. 당시 박 대표는 '아직도 아물지 못한 호남의 상처 때문에 무거웠다'고 말했다"면서 "30년 전 광주의 비극, 아직도 아물지 못한 호남의 상처, 그 역사의 아픔을 이제 제가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이혜훈 후보는 "지방선거 참패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호남밖에 없었다"고 호남을 치켜세운 뒤 "지도부에 임명하면 호남 예산을 반드시 챙겨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계 이성현 후보는 "영광에서 태어난 호남의 아들 이성현이 새로운 한나라당을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나에게 힘을 주면 호남의 대표가 돼서 호남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호소했다.

중립인 남경필 후보는 "광주는 제2의 정치적 고향이다. 2년 반 전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자매결연을 했다"면서 "한나라당에서 호남 예산을 때내는 최고위원이 될 것이다. 후원의 사 무실을 광주로 옮겨 호남에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올 때까지 호남을 대변하겠다"고 주장했다.

친이 성향의 중립 나경원 후보는 "내 본관이 나주고, 난 나주의 딸"이라고 호남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한 뒤 "관사시절 조정을 뛴 나경원이 계파갈등 해소, 쇄신 등을 이루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jkpark@kwangju.co.kr

정무수석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정종복 전 의원, 권철현 주일 대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홍보수석 후임은 김두우 메시지기획관이 앞서가고 있다.

대변인은 청와대 외부 여성 인사를 발탁 가능성과 함께 유성식 시민사회비서관과 박정하 춘추관 선임행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과 박형준 정무수석의 이동설이 나오는 가운데 '제3의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외교안보수석과 민정수석은 유

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회복지수석은 진영근 수석의 유임 가능성과 함께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과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의 유임을 점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들어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전략기획관과 정책지원관에는 각각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과 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사기획관은 김병식 인사비서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으나 공식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영순 전 송과구청장과 박태주 한국정책평가연구원(KEDI)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심재철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후보군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농림부와 여성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개각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정부 집권 하반기 靑 참모진·내각 진용 윤곽

총리 화합형 유력·장관 9명 대상 광주·전남 출신 인사 여전히 가뭄

오는 15~16일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내주 중반으로 관측되고 있는 개각을 앞두고 후보군이 점차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과 개각 후보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인적 개편=사회통합수석 후보로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 윤광중 한신대교수, 정태운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진성 서울대학교수, 오웅진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무수석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정종복 전 의원, 권철현 주일 대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홍보수석 후임은 김두우 메시지기획관이 앞서가고 있다.

대변인은 청와대 외부 여성 인사를 발탁 가능성과 함께 유성식 시민사회비서관과 박정하 춘추관 선임행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과 박형준 정무수석의 이동설이 나오는 가운데 '제3의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외교안보수석과 민정수석은 유

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회복지수석은 진영근 수석의 유임 가능성과 함께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과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의 유임을 점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들어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전략기획관과 정책지원관에는 각각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과 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사기획관은 김병식 인사비서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으나 공식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영순 전 송과구청장과 박태주 한국정책평가연구원(KEDI)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심재철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후보군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농림부와 여성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개각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용노동부, 천안함 사태로 김태영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국방부까지 9개다.

우선 교과부 장관에는 이주호 제1차관과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에는 친이계인 장관인 박용호 국제청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방장관에는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이희원 대통령실 안보특별보좌관, 김관진 전 합참의장, 김근태 전 1군사령관,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영순 전 송과구청장과 박태주 한국정책평가연구원(KEDI)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심재철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문화관광체육부는 후보군이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농림부와 여성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개각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두언 직계 김유환 실장이 野에 밀고”

한나라 이성현 의원…김실장 “사실 아니다”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은 11일 국무총리실 김유환 정무실장이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 관련 내용을 야당에 제 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보 비전 발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포회가 인사개입을 하고, 여러 문제가 있다. 자료를 야당에 제공한 사람은 김 정무실장"이라며 "민주당 신 건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총리실 김 실장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영포회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진위는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정무실장은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로서 이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 건 의원은 "그런(김

실장이 자신에게 영포회 자료를 제공한) 일이 없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호 비서관 사표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부비서관이 11일 오후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은 이날 트위터(www.twitter.com)를 통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부비서관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사직서에서 "저로 인해 물의가 빚어져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으로서 분의 아니게 대통령께 누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온라인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짜릿한 2박 3일 **제주도여행**

OZ(무안공항) + 퀴에라호(목포항)
출발 매주 수, 금, 일요일

7월 14일 단 하루만
초특가 159,000으로 즐기는 **제주도여행**

성수기 7월 16일 - 8월 22일 209,000원-
극성수기 7월 28일 - 8월 7일 239,000원-

· (주요 서비스) 제주 선박 및 항공료, 차비, 숙박(호텔/리조트/펜션/민박/숙박) 식사 (오전/중/저녁) 차량 렌탈(자동차) 등 포함
· 불포함 서비스: 여행기내품, 전자기기, 렌탈카(기타) 등 (기타) 여행, 보험료, 유류비, 공항세, 호텔/숙박료, 렌탈카(기타) 등

제주도여행 [제주여행사] [제주여행사] [제주여행사] [제주여행사]